

광주 시내버스 흑자 노선은 '1곳' ... 100개 노선 적자

'진월07' 만 14% 수익... 1일 평균 승객 8명 '충효 188'는 -98%

시, 대다수 시민 혈세 운영... 소형화버스·점핑버스 도입 추진

광주시 시내버스 101개 노선 중 100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2018 광주시내버스 노선 일일 수익금' 자료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101개 노선 가운데 지난해 '진월 07' 1개 노선만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진월 07'은 1일 대당 평균 이용객수는 714명으로 68만 7698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노선의 1일 대당 순운송원가인 60만 5660원과 비교하면 8만 2038원 (14%)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100개 노선은 모두 적자 운행되고 있다. 특히 순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이

-30% 이상인 노선은 73개 노선(전체 노선의 72%), 절반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수익금 -50% 이상' 노선도 46개 노선(45%)에 달했다. 적자폭이 가장 큰 노선은 '충효 188'이다. 이 노선의 순운송원가는 44만 1883원이지만 1일 평균 대당 이용객 8명에 그치며 대당 평균 수입금은 8479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매일 1대를 운행할 때마다 43만 3404원이 적자로 순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은 -98%를 기록했다.

'충정100' 노선도 하루 평균 49명의 승객을 운송해 순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이 -90%(39만 7268원), 일 평균 52명의 시민이 탑승하는 '첨단92'는 수익금이 -88%(38만 8887원)를 보였다.

시는 이처럼 시내버스 대다수 노선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화버스·점핑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 등을 시내버스 회사에 손실보조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한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0억 출연한다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50억원을 출연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등 농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과 활성화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전 아트센터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을 개최한다.

상생기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금 조성을 합의했고, 2017년 1월 'FTA 농어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최고 5억8200만원

193명 홈페이지·위택스에

광주시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멸기간을 부여했다.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85명(법인 60명, 개인 125명)이며 체납액은 84억원이다.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씨(45)로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5억8200만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8명(법인 1명, 개인 7명)에 체납액은 3억8000만원이다.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열차 감축 운행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전광판에 열차승차권 반환방법을 알리는 문구가 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파업 여파로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KTX 46편 중 10편(상·하행 각 5편)이 취소됐고,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등을 지나는 새마을호는 12편 중 4편, 무궁화호는 32편 중 8편이 운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1388명 명단 공개

전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88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783억원이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멸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

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원), 법인은 455명(40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후 소멸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체납액 19억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등이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다.

허성은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